

“김정남 암살 남성 용의자 5명 北 국적”

말레이 경찰 “사인 분석 중... 시신 인도 유가족 우선권”

북한 김정남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19일 사건에 연루된 북한 용의자는 모두 5명이라고 밝혔다.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 경찰부장은 이날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건에서 신원이 확인된 남성 용의자 5명의 국적이 북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검거된 리정철(46) 외에 리지현(52)·홍송학(33)·오종길(55)·리재남(57)이 사건에 연루된 북한 국적의 용의자들이다. 이 가운데 리정철을 제외한 4명은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를 떠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 리지우 등 다른 북한인 3명을 사건 연루자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용의자와 연루자로 거론된 사람들 가운데 외교 여권을 지닌 사람은 없었다.

이브라힘 경찰부장은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남성) 용의

자들이 모두 북한 국적”이라고 말해 북한의 역할을 시사했다.

아울러 사인과 관련해선 확인되지 않았으며 독성 검사 중이라고 말했다. 독살을 확인해 줄 독성물질 분석 결과를 포함한 부검 보고서와 관련해 그는 “부검 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 사인 독성검사가 끝나면 김정남 사인이 확인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검사 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과 말레이 간 외교 갈등으로 실랑이가 벌어진 김정남 시신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브라힘 경찰부장은 다만 김정남 가족이 시신을 받으려면 직접 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남은 지난 13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2(KLIA2)에서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독살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고 숨졌다. /연합뉴스



말레이 현지 뉴스트리츠 타임스가 18일 인수해 보도한 김정남 사진. 피습 직후 쿠알라룸푸르 공항 내 의무실 소파에 김정남이 정신을 잃은 듯 누워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연합뉴스

통일부 “사건 배후에 北정권”

통일부가 19일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기자회견 직후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예정보고된 논평을 발표하면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정부는 피살자가 여러 정황상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본다”며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임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행기 타고 다도해 구경한다

신한에어, 25일부터 여수공항서 ‘스카이 투어’ 취항

일반인도 비행기에서 다도해의 절경을 볼 수 있게 된다.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항공관광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9일 “남해안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신한에어가 오는 25일부터 여수공항에서 ‘스카이 투어’를 취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1인당 5만9000원의 비용을 내면 30분 동안 전남 남해안을 비행기로 둘러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주)신한에어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소형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여수공항 취항을 앞두고 있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주간에는 여수공항~모계도~사도~백야도등대~항일암~여수공항~

여수공항, 야간에는 여수공항~순천~광양제철소~여수공항~여수공항 각각 노선으로 나눠 매일 10회 운항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무안공항~팔금도~장산도~팔금도~무안공항 노선을 포함한 3개 코스를 운항할 예정이다.

운항 기종은 미국 세스나사에서 제작한 제트엔진 기반의 최신 그랜드 카라반(Cessna GrandCaravan) 208B이다. 항공 거리는 1982km, 평균 시속 300km이며, 탑승객 전 좌석이 VIP시트 등으로 구성된 특별 주문 항공기다.

항공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은 (주)신한에어 누리집(<http://www.shinhanair.com>)이나 여수공항 2층(주)신한에어 발권카운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해조류 양식어장 7000ha 추가 개발

김·다시마 등 대상

전남도가 수출 유망 품목인 김, 다시마 등을 중심으로 해조류 양식어장 7000ha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19일 “김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어장 7000ha를 확대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장이용개발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어장의 재개발을 비롯해 어장 적지에 대한 신규 어장 개발, 기존 어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체 개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세부지침의 기본방향은 패류 및 해조류 양식어업은 전체어장의 5%까지

신규 개발하면서 시·군 수요와 지역적 특성, 수출 잠재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신규 개발을 허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다시마 등은 향후 중국, 러시아 등 신규 해외시장 확대에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공익사업계획이 고시된 수면이나 폐업보상 완료수면, 오염된 양식어장, 밀집시설 등으로 상습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과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전복에 대해서는 신규 어장 개발을 제한한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오는 3월 말까지 해당 시·군별로 신청받아 4월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부의 검토·승인을 거쳐 전남도가 확정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고흥 신평마을 일제강점기 해태조합 건물.



신안 안좌도 한운마을 ‘독살’.

고흥 해태조합·신안 독살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응모

전남도, 어업자원 일제조사

전남도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대상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보전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 일제조사에 나선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한 자원에 대해 오는 5월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해양수산부가 어촌의 중요한 가치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첫 해에 보성 뱀머리어업, 제주 해녀어업,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이 지정됐다. 지난해에

는 신안 갯벌 천일염어업이 추가돼 모두 4개가 지정됐다.

전남에는 이외에도 고흥 신평의 지주식 김양식과 일제강점기 해태조합건물, 신안 한운의 독살, 강진 병영의 가래치기, 완도 신지의 갯우리 등 다양한 어업유산이 산재해 있다.

고흥군 거금도 신평마을에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건립된 금산해태조합건물이 당시 그대로 남아 있으며, 당시 사용된 붉은 벽돌은 소록도병원 벽돌공장에서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이 건물 주위는 수령 160년이 넘는 향나무가 둘러싸고 있다.

신안군 안좌도 한운마을에는 전통적인

생태어법의 원형인 ‘독살’이 그대로 남아 있다. 독살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가장 오래된 전통방식으로, 한운마을 독살의 연장은 무려 800여m에 달한다. 현재는 상당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강진군 병영면 가래치기는 바구니에 물고기를 가위 손에 전해오는 느낌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다. 벼 수확이 끝나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저수지의 물을 빼고 가래를 이용해 가물지나 붕어 등을 잡는 이 색채 어업으로 강진군 병영면 이장단이 2008년부터 체험행사로 재연하고 있다. 가래는 대나무나 갈대를 엮어 만든 밀이

트인 원뿔형 바구니로 크기는 대략 50cm 내외다.

완도군 신지도 ‘갯우리 어업’은 작은 어선이 해안에서부터 바다 쪽에 그물을 끌어 바다 멀리까지 달린 후 다시 해안으로 돌아와 그물을 반열 모양으로 친 후 육지에서 그물의 양 끝을 끌어당겨 고기는 잡는 전통어업이다.

국가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되면 유산 자원 복원, 환경 정비,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등을 위해 3년간 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최정희 전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유무형의 어업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어업 유산으로 지정해 어촌 방문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성실 사업 실패후 재기 도와 드립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좌절한 후 재기할 분을 찾습니다.”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낙인찍히기 쉽고 신용불량자가 돼 다시 일어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패요인을 분석해 새롭게 시작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 좌절에 빠져있는 사업자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광주시는 올해 의욕적으로 ‘재창업역량강화지원’에 나선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신현규)은 패키지형 제도전과 재창업자금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적극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공동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신용회복컨설팅, 실패원인 분석, 사업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힘을 보탠다. 또 마케팅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재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진흥원은 지역 대상으로 사업실패 후 새로운 계획을 모색중인 예비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의 대표자 20명을 3월 초까지 모집한다.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or.kr)에 자세한 방법이 소개돼 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거제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 2차 신입생 추가 모집

졸업생 취업률 88.2% !! 전국 330여개 대학 중 최상위!

(2015 졸업생,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대학 구조개혁평가
"A"등급
획득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
선정

학생 1인 평균장학금 50% 혜택

기숙사 100% 수용 가능

2017학년도 졸업대상자

대우조선해양(주) 취업약정 18명

조선업황 '2018년부터 신조선 발주 회복세'

대우조선, 7천억 LNG선박 수주

2016.12.18 17:48:18

수주 가량이 시달리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LNG-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가치화 설비) 1척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연말까지 약관 수주잔액 총액을 기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 안틸리쿠시스그룹 자회사인 마란가스(Maran Gas Maritime INC.)로부터 17만3400t 규모의 LNG-FSRU 1척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6월 발주 예정인 2척의 일반 LNG선(용선)까지 포함하면 수주 금액은 총 7000억원에 ...

모집기간

- 접수기간 : 2017. 1. 16(월) ~ 2. 28(화)
- 세부내용 : 거제대학교 홈페이지 참조(www.koje.ac.kr)
- 입학문의 : 055-680-1507, 1510

거제대학교 정규직 취업률 현황 (최근 5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대학 평균취업률	58.6%	59.6%	60.2%	62.2%	62.2%
거제대학교 취업률	77.5%	80.4%	85.9%	86.7%	88.2%

“강인한 생존력을 갖춘 무적함대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표이사장 정성립